

나의 찬란한 라이벌

글 탁경은 | 소원나무 | 2025

학년 / 반 _____

이름 _____



주제

책을 읽고, 내 생각 확장하기

키워드

#라이벌 #경쟁 #성장 #우정 #꿈

대상 학년

중학교 1~3학년

권장 차시

9차시

수업 활용

- 자유 학기 수업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동아리 활동

작성자

장수 고등학교 김송희 교사

교과 연계

- [중 1-1] 국어 4. 갈등을 넘어
- [중 1-2] 국어 1. 성찰하며 성장하며
- [중 1-2] 국어 2. 소통의 열쇠
- [고 1] 국어 4.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

■ 독서 활동 개요

도서	나의 찬란한 라이벌(소원라이트나우 08)
작가	탁경은
키워드	#라이벌 #친구 #성장 #경쟁 #우정 #꿈
대상 학년	중학교 1~3학년
권장 차시	9차시
수업 활용	- 자유 학기 수업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동아리 활동

■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제목 살펴보기	라이벌 관련 영상
2		내용 예측하기	
3	읽는 중	「나는 화가 난다」 - 인물 파악하기	
4		「골든 넘버 5」 - 내용 파악하기	
5	읽은 후	나의 찬란한 라이벌	
6~7		생각 나누기(비경쟁 독서 토론)	모둠 활동
8~9		책 카드 광고 만들기	모둠 활동

■ 성취 기준

차시	활동 내용	교과	성취 기준
1	제목 살펴보기	국어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2	내용 예측하기		[9국05-04]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3	「나는 화가 난다」 - 인물 파악하기		[9국02-03]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4	「골든 넘버 5」 - 내용 파악하기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5	나의 찬란한 라이벌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6~7	생각 나누기 (비경쟁 독서 토론)		[9국01-07]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8~9	책 카드 광고 만들기		[9국06-04]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읽기 전	제목 살펴보기	1
------	---------	---

✓ 제목을 어절로 나누었을 때,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해 봅시다.



나의	찬란한	라이벌

✓ 아래 글을 보고, 라이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글 1>

‘김연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아사다 마오인데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1990년생 동갑내기요, 주니어 시절이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가까이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맞붙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세기의 대결로 뽑힙니다. 김연아는 완벽한 연기로 사상 최고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세기의 대결’에서 밀린 아사다 마오는 경기 직후 굵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1등을 하지 못해 슬펐고, 그래서 현역 생활을 즐겁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김연아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와 서로 ‘자극이 되는 존재’라고 떠올렸습니다. 서로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실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대회를 많이 하면서 사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더 좋은 실력으로 우승한 적도 많았고 한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올림픽에서 제가 1등을 했다 보니까 이제 마오 선수한테는 그 순간이 끝까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자이자 함께 고생한 동료인 만큼 따뜻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한일전이었고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열기가 과해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사다 마오가 충분히 훌륭한 선수였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아마 그 선수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말해주고 싶네요.”

양정진 (2025.2.27. JTBC), 김연아의 영원한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에게 아사다 마오란? “자극이 되는 존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983?influxDiv=NAVER>

<글 2>

이상화(35)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키(38)의 우상이었다.

이상화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2연패 할 때 고다이라 나오키는 이상화를 '롤 모델'로 삼아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다.

고다이라 나오키가 이상화를 완벽하게 따라 잡은 것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부터였다.

이상화는 2017년 2월21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벌어진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7초70을 기록, 고다이라(37초39)에게 0.31초 차이로 뒤져 은메달에 그쳤다.

그 후 고다이라 나오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를 완벽하게 넘어섰다.

고다이라 나오키는 2018년 2월18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벌어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36초94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500m에서 3연패를 노리던 이상화는 고다이라 나오키에 0.39초 뒤진 37초33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땀다.

당시 500m 레이스를 마치고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키는 마치 오래 만에 만난 연인처럼 뜨겁게 껴안았다.

이상화는 진정한 라이벌 고다이라 나오의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고다이라 나오는 후배지만 늘 존경해 오고 있다는 이상화와 함께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했다.

당시 두 선수가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국경을 초월해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은 평창올림픽의 최고 명장면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2018 평창 기념재단의 '한일 우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 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는 한국의 동계올림픽 해설자, 고다이라 나오는 일본의 최고참 선수로 재회했다.

고다이라 나오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의 주 종목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17위에 그친데 이어 1000m에서 1분 15초 65로 10위에 머물렀다.

고다이라 나오가 비록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중계석에서 지켜본 이상화 해설위원은 “우리가 둘이 처음 만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히 잘해왔다. 우리는 영원한 올림픽 챔피언이다. 고생했고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기영노 (2025.2.5. 뉴시안), [동계올림픽 프리즘]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의 '국경 넘은 우정' <https://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19>

읽기 전

내용 예측하기

2

✓ 『나의 찬란한 라이벌』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과 이야기의 첫 문단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재욱은 자기 인생에 또 끼어든 녀석 때문에 화가 난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번번이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들다니. 그것도 오랫동안 버르고 버른 전교 회장 선거에서 말이다.

「골든 넘버 5」

사람들은 아버지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천재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

읽는 중

「나는 화가 난다」 -인물 파악하기

3

✓ 「나는 화가 난다」 를 읽고, 인물의 행동과 말, 생각 등을 적고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 이름 >

		1.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2. 인물이 어떤 말을 했나요?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3. 인물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4. 인물과 관련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적어 봅시다.		

읽는 중

「골든 넘버 5」 -내용 파악하기

4

- ✓ 「골든 넘버 5」 를 읽고, 제훈의 입장에서 제훈이 알고 있던 것과 알고 싶어 하던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봅시다.

알고 있던 것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 ✓ 제훈이 『골든 넘버』 5권을 써 보는 과정에 영향을 준 주변 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인물	인물의 행동과 말	제훈의 행동 변화

읽은 후

나의 찬란한 라이벌

5

✓ 『나의 찬란한 라이벌』의 각 인물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라이벌을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라이벌은 누구인가요?

2.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라이벌로 인해 더 노력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경험이 있나요?

4.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나’를 넘어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읽은 후 생각 나누기(비경쟁 독서 토론) 6~7

- ✓ 『나의 찬란한 라이벌』은 ‘라이벌’을 주제로 한 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읽고 생각을 나누며 확장할 수 있도록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해 봅시다.

1.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를 읽고 난 후 생각이나 느낌을 한 줄로 적어 봅시다.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

2.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를 읽고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

3.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4. 모둠원의 질문을 모아 대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5.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해 봅시다.

6. 토론 후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기억에 남는 질문

위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

기억에 남는 나와 다른 친구의 생각

토론 후 달라진 나의 생각

읽은 후

책 카드 광고 만들기

8~9

- ✓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 두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모둠별로 책 카드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1.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소개할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적어 봅시다.

이야기 정리하기		
학년/이름:		
	줄거리	광고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		

2. 모듬원의 줄거리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참고하여 광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봅시다.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모듬원:		
☐ 「나는 화가 난다」 ☐ 「골든 넘버 5」		
슬라이드	주요 내용	이미지
1		
2		
3		
4		
5		
6		

3.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카드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나의 찬란한 라이벌

글 탁경은 | 소원나무 | 2025

학년 / 반 _____

이름 _____



주제

책을 읽고, 내 생각 확장하기

키워드

#라이벌 #경쟁 #성장 #우정 #꿈

대상 학년

중학교 1~3학년

권장 차시

9차시

수업 활용

- 자유 학기 수업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동아리 활동

작성자

장수 고등학교 김송희 교사

교과 연계

- [중 1-1] 국어 4. 갈등을 넘어
- [중 1-2] 국어 1. 성찰하며 성장하며
- [중 1-2] 국어 2. 소통의 열쇠
- [고 1] 국어 4.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

■ 독서 활동 개요

도서	나의 찬란한 라이벌(소원라이트나우 08)
작가	탁경은
키워드	#라이벌 #친구 #성장 #경쟁 #우정 #꿈
대상 학년	중학교 1~3학년
권장 차시	9차시
수업 활용	- 자유 학기 수업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동아리 활동

■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제목 살펴보기	라이벌 관련 영상
2		내용 예측하기	
3	읽는 중	「나는 화가 난다」 - 인물 파악하기	
4		「골든 넘버 5」 - 내용 파악하기	
5	읽은 후	나의 찬란한 라이벌	
6~7		생각 나누기(비경쟁 독서 토론)	모둠 활동
8~9		책 카드 광고 만들기	모둠 활동

■ 성취 기준

차시	활동 내용	교과	성취 기준
1	제목 살펴보기	국어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2	내용 예측하기		[9국05-04]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3	「나는 화가 난다」 - 인물 파악하기		[9국02-03]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4	「골든 넘버 5」 - 내용 파악하기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5	나의 찬란한 라이벌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6~7	생각 나누기 (비경쟁 독서 토론)		[9국01-07]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8~9	책 카드 광고 만들기		[9국06-04]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읽기 전

제목 살펴보기

1

- ✓ 제목을 어절로 나누었을 때,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해 봅시다.



나의	찬란한	라이벌
친구 이야기 취미	학교생활 방학 오후	<포드 V 페라리> 친구 경쟁

✓ 아래 글을 보고, 라이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김연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아사다 마오인데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1990년생 동갑내기요, 주니어 시절이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가까이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맞붙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세기의 대결로 뽑힙니다. 김연아는 완벽한 연기로 사상 최고 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세기의 대결’에서 밀린 아사다 마오는 경기 직후 붉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1등을 하지 못해 슬펐고, 그래서 현역 생활을 즐겁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김연아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와 서로 ‘자극이 되는 존재’라고 떠올렸습니다. 서로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실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대회를 많이 하면서 사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더 좋은 실력으로 우승한 적도 많았고 한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올림픽에서 제가 1등을 했다 보니까 이제 마오 선수한테는 그 순간이 끝까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선이의 경쟁자이자 함께 고생한 동료인 만큼 따뜻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한일전이었고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열기가 과해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사다 마오가 충분히 훌륭한 선수였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아마 그 선수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말해주고 싶네요.”

양정진 (2025.2.27. JTBC), 김연아의 영원한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에게 아사다 마오란? “자극이 되는 존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983?influxDiv=NAVER>

라이벌이라고 너무 의식하고 경쟁심만 가지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서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이상화(35)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키(38)의 우상이었다.

이상화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2연패 할 때 고다이라 나오키는 이상화를 '롤 모델'로 삼아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다.

고다이라 나오키가 이상화를 완벽하게 따라 잡은 것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부터였다.

이상화는 2017년 2월21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벌어진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7초70을 기록, 고다이라(37초 39)에게 0.31초 차이로 뒤져 은메달에 그쳤다.

그 후 고다이라 나오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를 완벽하게 넘어섰다.

고다이라 나오키는 2018년 2월18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벌어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36초94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500m에서 3연패를 노리던 이상화는 고다이라 나오키에 0.39초 뒤진 37초33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땀다.

당시 500m 레이스를 마치고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키는 마치 오래 만에 만난 연인 처럼 뜨겁게 껴안았다.

이상화는 진정한 라이벌 고다이라 나오키의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고다이라 나오키는 후배지만 늘 존경해 오고 있다는 이상화와 함께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했다.

당시 두 선수가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국경을 초월해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은 평창올림픽의 최고 명장면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2018 평창 기념재단의 '한일 우정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 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는 한국의 동계올림픽 해설자, 고다이라 나오키는 일본의 최고참 선수로 재회했다.

고다이라 나오키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의 주 종목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17위에 그친데 이어 1000m에서 1분 15초 65로 10위에 머물렀다.

고다이라 나오키가 비록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중계석에서 지켜본 이상화 해설위원은 “우리가 둘이 처음 만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히 잘해왔다. 우리는 영원한 올림픽 챔피언이다. 고생했고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기영노 (2025.2.5. 뉴시안), [동계올림픽 프리즘]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키의 '국경넘은 우정' <https://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19>

라이벌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를 가장 응원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지 2

[2차시]

읽기 전

내용 예측하기

2

✓ 『나의 찬란한 라이벌』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과 이야기의 첫 문단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재욱은 자기 인생에 또 끼어든 녀석 때문에 화가 난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번번이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들다니. 그것도 오랫동안 버르고 버른 전교 회장 선거에서 말이다.

「골든 넘버 5」

사람들은 아버지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천재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나는 화가 난다」

재욱이 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할 때 재욱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횡방을 놓아서 화가 나고, 이후에도 재욱이 화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다.

「골든 넘버 5」

국가에서 관리하는 천재 아버지가 골든 넘버 5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라이벌과 경쟁하는 이야기 같다.

활동지 3

[3차시]

읽는 중 「나는 화가 난다」 -인물 파악하기 3

- ✓ 「나는 화가 난다」를 읽고, 인물의 행동과 말, 생각 등을 적고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 ※ 재욱, 영재, 소은, 초연 등 여러 인물을 모두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은 >

1.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초연이 재 육을 좋아 한다는 걸 알고, 초연 과 같은 사 람을 좋아 하는 게 싫 어서 재육 의 고백을 거절함.		초연이 알 바하는 곳 을 알아내 찾아감.	SNS에 “그 냥, 계속 그려 주면 안 돼?”라 는 초연의 말을 올림.		
2. 인물이 어떤 말을 했나요 ?	포기가 꼭 실패 를 의미하지 않 는다는 걸 이제 잘 안다.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회장 선거 전 에 재육의 엄 마에 관한 소 문이 도는 것 이 이상하다고 생각함.	3. 인물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
	“그, 그래도 그 렇지, 그러다가 손 다치면 어찌 러고. 그림 그 리는 애가 왜 조, 조심을 안 해?”			초연이 거짓말 을 해 후원금 을 받은 것이 라고 생각함.	
	“이번에 동상 받은 거 축하 해.”			경쟁 상대라는 이유로 초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고 미 워만 했음을 깨달음.	
소은을 좋아 하는 재육.		소은의 그림 을 좋아하는 초연.	소은의 생각 을 기록하는 SNS.		
4. 인물과 관련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적어 봅시다.					

읽는 중 「골든 넘버 5」 -내용 파악하기

4

- ✓ 「골든 넘버 5」를 읽고, 제훈의 입장에서 제훈이 알고 있던 것과 알고 싶어 하던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봅시다.

알고 있던 것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화가와 그림. -『골든 넘버』 5권의 구상안과 시놉시스.	-『골든 넘버』 5권을 쓴 사람. -아버지의 생각.	-출판사는 『골든 넘버』 5권의 구상안과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지 않음. -아버지가 남긴 클론.

- ✓ 제훈이 『골든 넘버』 5권을 써 보는 과정에 영향을 준 주변 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인물	인물의 행동과 말	제훈의 행동 변화
아티	“『골든 넘버』 오 권, 네가 써 보는 건 어때?”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봐.”	『골든 넘버』 5권을 써 보기 시작함.
사서 선생님		
이경 선배		

읽은 후

나의 찬란한 라이벌

5

✓ 『나의 찬란한 라이벌』의 각 인물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라이벌을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라이벌은 누구인가요?

가장 친한 친구

2.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많은데, 친구는 뭐든지 잘해서
친구만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3. 라이벌로 인해 더 노력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경험이 있나요?

친구가 새로 배우는 악기를 따라 배운 적이 있다.

4.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나’를 넘어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1. 과거의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2.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읽은 후 생각 나누기(비경쟁 독서 토론) 6~7

■ 비경쟁 독서 토론이란?

서로의 생각을 보태어 다양한 관점을 열어 주는 대화식 토론.

■ 비경쟁 독서 토론 진행 방법

- 1)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 받지 않고 허용되는 분위기 만들기
- 2) 책을 읽고 난 후 느낌 표현하기
- 3) 기억에 남는 키워드 정리하기
- 4) 키워드를 바탕으로 질문 만들기
- 5) 대표 질문을 선정하여 비경쟁 독서 토론 진행하기

가) 모듈별 대표 질문으로 토론하기

나) 5~10분 간격으로 자리 이동하며 다른 주제로 토론하기

※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학생을 한 명을 정해 모듈장 역할을 하게 하거나, 모듈장을 정하지 않고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으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토론 주제

아래의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한 차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1) 「나는 화가 난다」의 재욱, 영재, 소은, 초연 네 인물 중 가장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간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는 화가 난다」에서 방독은 지지하지 않는 후보 학생을 괴롭히고 선거에서 불리하게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이를 통해 방독은 원하는 결과를 얻

어 내기 위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정과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 「골든 넘버 5」에서 제훈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가수, 또래의 스포츠 선수 등 많은 사람이 라이벌 구도에 열광하고 응원합니다. 라이벌 구도가 문화와 스포츠 등을 즐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긍정적/부정적)

(5) 학교생활에서 친구는 경쟁자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동의하나요?

(6) 다른 사람을 이기고, 더 높이 올라서야 하는 경쟁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나의 찬란한 라이벌』은 ‘라이벌’을 주제로 한 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읽고 생각을 나누며 확장할 수 있도록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해 봅시다.

1.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를 읽고 난 후 생각이나 느낌을 한 줄로 적어 봅시다.

「나는 화가 난다」
내가 알고 있는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든 넘버 5」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 같다.

2.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를 읽고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나는 화가 난다」
학생회장, 사랑, 불공정
「골든 넘버 5」
아버지, 로봇, 선배, 유령 작가

3.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옳은가?

4. 모둠원의 질문을 모아 대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5.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해 봅시다.

6. 토론 후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기억에 남는 질문

위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

기억에 남는 나와 다른 친구의 생각

토론 후 달라진 나의 생각

읽은 후

책 카드 광고 만들기

8~9

- ✓ 「나는 화가 난다」, 「골든 넘버 5」 두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모둠별로 책 카드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1.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소개할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적어 봅시다.

이야기 정리하기		
학년/이름:		
	줄거리	광고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
「나는 화가 난다」	공부, 운동, 유머 감각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재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재욱에게 패배감을 안겨 주는 친구가 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받고, 첫사랑 소은마저 뺏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 영재.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마음먹은 재욱은 영재도 회장 선거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는다.	재욱과 소은이 라이벌로 생각하는 영재와 초연을 의식하고 라이벌의 행동에 분노하지만, 후에 영재와 초연을 라이벌이 아닌 영재, 초연 그 자체로 바라보며 생각이 바뀌는 부분.

「골든 넘버 5」	인기 시리즈 『골든 넘버』 시리즈의 작가를 아버지로 둔 제훈. 아버지가 5권을 출간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제훈은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 아버지가 남긴 세계관과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5권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학교의 선배도 5권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란한 와중 엄청난 소식이 들린다. 바로 『골든 넘버』 5권의 출간 소식. 5권을 쓴 ‘석’이라는 작가는 도대체 누구지?	선배들과 함께 5권을 출간한 ‘석’이라는 작가를 찾아나서는 부분.
----------------------	---	---

2. 모듬원의 줄거리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참고하여 광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봅시다.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모듬원:		
☐ 「나는 화가 난다」 ☒ 「골든 넘버 5」		
슬라이드	주요 내용	이미지
1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골든 넘버』 시리즈의 작가인 아버지 김창석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책 표지
2	4권을 출간하고 심근 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쓰러진 아버지 모습
3	아버지가 사 주신 로봇 아티의 제안으로 5권을 쓰기 시작한 제훈	글을 쓰는 모습
4	독서단 선배 이경도 5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훈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
5	어느 날 ‘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5권	5권 책 표지
6	5권을 쓴 작가를 찾아 나서는 제훈과 독서단 선배들	출판사를 찾아가는 제훈과 선배들

3.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카드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